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생명과 건축물

3/17 월요일

아침의 누림

벧후 1:3-4

3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서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벧전 1:23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창 2:8-9, 22

8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22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마 16: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골 2: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엡 4: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라므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그것의 결과인 건축물은 ... 사실상 신약 전체의 주제이다. 생명은 간단히 말해 삼일 하나님이다. 그분은 긴 과정을 통과하신 후에 생명의 영이 되셨다. ... 건축물은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건축물은 생명에서부터 나온다. 교회는 신성한 생명의 산출물이다.

일단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아들이면 ...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우리를 적시고 변화시키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하기 시작한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거처는 교회이고, 영원 시대에서 그분의 거처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 거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결과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랄 때 우리는 변화되며, 이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이다. 성장과 변화와 건축은 신약에 있는 중요한 요점들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0 년, 2 권,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9 장, 305 쪽)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 그러나 우리의 창조된 생명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 이 생명은 신성한 생명이자 영원한 생명이다. 실지로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고 생명주시는 영으로 실재화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신명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1, 17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 우리에게 놀랍고도 비밀스러우며 신성한 능력을 주셨다. 신성한 능력이신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하). ... 창조된 것 중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 구속 역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에 의해 성취되었다. 한사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수 있었던(히 9:12) 것은 신성한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오늘날 생명 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은 부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부활 안에 있는 생명 곧 신성한 능력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베드로후서 1 장 3 절에 나오는 신성한 능력은 신성한 생명의 능력이며, 이 신성한 생명의 능력은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다함이 없다. 생명과 관련된 것들 안에는 생명의 법(롬 8:2, 히 8:10), 겸손, 지혜, 즐거움, 사랑, 기쁨, 소망, 복종, 선함, 온유, 인자, 오래 참음, 평안이 포함되어 있다.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어떤 식물의 씨 안에 있는 생명 능력에는 식물과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씨 안에 있는 생명 능력에는 그 식물의 줄기, 가지들, 잎들, 피는 꽃, 만개한 꽃, 열매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 안에 씨로 있는 신성한 생명의 능력 안에는 신성한 생명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신성한 능력 안에는 사랑, 인내, 겸손, 인자, 오래 참음과 같은 미덕들이 있다. 신성한 능력, 생명의 능력 안에는 내적인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뿐 아니라 외적인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것의 또 다른 범주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이다. 베드로후서 1 장 4 절에 있는 약속들은 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

약속들은 내적 생명과 생명의 외적 표현을 위한 약속들이다. 이러한 약속들 중 하나가 에베소서 3 장 20 절에 기록되어 있다. ...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다는 이 약속은 현재의 생활을 위한 물질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생활을 위한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내적인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교회생활을 위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것이다. 다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은 마태복음 28 장 20 절, 요한복음 6 장 57 절, 7 장 38 절과 39 절, 10 장 28 절과 29 절, 14 장 19 절과 20 절, 23 절, 15 장 5 절, 16 장 13 절부터 15 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9년, 2권, 성경에 있는 생명에 관한 중대한 계시, 16 장, 757-75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9년, 2권, 성경에 있는 생명에 관한 중대한 계시, 16 장

3/18 화요일

아침의 누림

벧전 2:4-5

4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 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5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요 1:42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를 주의 깊게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대가 게바라 불릴 것입니다(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다).”

행 4:11 이분은 건축자들인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셨지만,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셨습니다.

사 28:16 그러기에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참으로 내가 시온에 기초로서 한 돌, 시험받은 돌이자 견고한 기초로 세워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놓나니 이를 믿는 사람은 다급하지 않으리라.

속 4:7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꼭대기 돌을 내어놓을 때에, 사람들은 ‘은혜, 은혜가 그 돌에 있다!’라고 외칠 것이다.’ ”

롬 9:21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 있는 돌은 생명을 가졌을 뿐 아니라, 생명 안에서 자라기도 한다. 이 살아 있는 돌은 바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그리스도이다. 베드로전서 2 장 4 절과 5 절에서 베드로의 은유적인 표현은 식물의 생명에 속한 씨(벧전 1:23-24)에서 광물에 속한 돌로 바뀐다. 씨는 생명을 심기 위한 것이고, 돌은 건축물을 위한 것이다(벧전 2:5). ...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씨이시며,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하여 그분은 돌이시다. 생명의 씨이신 그분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살아 있는 돌로 체험할 수 있도록 자라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의 돌의 본성을 가진 변화된 살아 있는 돌들로 만드셔서, 기초와 모퉁이 돌이신 그분(사 28:16) 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게 하실 것이다.(벧전 2:4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돌인데, 그것은 거듭남과 변화로 말미암는다.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다(롬 9:21). 그러나 거듭날 때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씨를 받았으며, 이 씨는 우리 안에서 자람으로써 우리를 살아 있는 돌들로

변화시킨다. 베드로가 주님께 돌이켰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베드로, 곧 ‘돌’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요 1:42).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았을 때에 주님은 그분 자신이 반석, 곧 ‘돌’이시라는 더 전진된 계시를 주셨다(마 16:16-18). ...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살아있는 돌들이다.

우리의 타고난 출생에 따르면, 우리는 돌이 아니라 흙이다. ...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 (창 2:7). 로마서 9 장은 우리가 질그릇임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 돌이 된다.

베드로가 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셨다. ... 요한복음 1 장 42 절은 “예수님께서 그를 주의 깊게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대가 게바라 불릴 것입니다(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다).’”라고 말한다. ‘베드로’는 ‘돌’을 의미한다. ... 주님께서 시몬을 베드로 곧 돌이라고 부르셨을 때, 그것은 베드로가 분명히 돌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만일 주님께서 “그대는 금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금이 될 것이다.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곧 돌로 바꾸셨을 때 주님은 그가 돌이 될 것임을 아셨다.

요한복음 1 장 42 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돌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얼마 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합니까?”라고 물으셨다. 그때 아버지에게서 계시를 받은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질문에 답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주 예수님은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마 16:18)라고 응답하셨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분 자신께서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는 반석이시며 베드로 또한 돌임을 밝히셨다.

의심할 바 없이 요한복음 1 장에 기록된 사건과 마태복음 16 장에 기록된 사건은 베드로의 존재 안에 깊은 인상을 주었다. 베드로는 이 두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베드로는 틀림없이 바로 이 체험들로부터 영적인 집인 교회의 건축을 위한 살아 있는 돌의 사상을 얻었을 것이다. 베드로전서의 이 단락은 그 사건들을 통해 베드로가 받았던 인상을 토대로 기록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2 장 5 절은 살아 있는 돌들인 우리가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간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흙이다. 어떻게 우리가 건축될 수 있는가?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려면 우리는 돌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실지적으로 살아 있는 돌들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 있는 돌들이 되는 길은 살아 있는 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다(벧전 2:4).

변화를 보여 주는 예로 규화목을 들 수 있다. ... 오랜 세월 동안 나무는 물의 흐름에 잠겨 있고, 물은 나무를 통과한다. 이 물의 흐름에 의해 나무의 실질이 돌로 변화한다. 한 면에서 나무의 요소는 씻겨 나가고, 다른 면에서 돌의 요소가 들어와 나무의 요소를 대치한다. 이런 방식으로 나무는 돌이 된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8, 159-16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8

3/19 수요일

아침의 누림

엢 2: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잠 4:23 늘 깨어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벧전 3:4, 15

4 온유하고 정숙한 영의 썩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15 오직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이유를 들고자 하는 각 사람에게에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신 10:12 “이스라엘이여, 이제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섬기고,

막 12:30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 139:23-24

23 오,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저를 시험하시고 제 근심을 알아주십시오.

24 제게 무슨 해로운 길이 있는지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건축물은 살아 있기 때문에(벧전 2:5) 자라고 있다. 이 건축물은 자라서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실지적인 건축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엢 2:21 각주 6)

구원받은 후에 많은 사람이 영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생명의 노선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3 장, 4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둥글둥글한 돌에는 뾰족한 모서리나 특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결코 형제자매나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를 언짢게 하는 일도 없다. 그러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사람인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든 그는 항상 둥글둥글하고 한결같다. 그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교회 안에서도 둥글둥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 많은 형제자매가 그를 칭찬하면서 “그는 정말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집에서 다투지 않으며 밖에서도 곤란한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결코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영적이고 생명으로 충만합니다.”라고 말한다. ... 우리는 사실 그것이 위선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라면, 그는 심지어 구원받기 전에도 영적이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사람의 영성은 외적인 모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얼마나 주의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고, 생명은 그리스도이며, 생명은 성령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닌 것은 결코 생명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표준에 도달하거나 심지어 그 표준을 넘어서더라도, 여전히 그것이 반드시 생명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뜻과 요구들에 관해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루시는 것에 관해 우리가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내적인 느낌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것처럼 기꺼이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것이 곧 반역이다.

우리가 매우 적극적으로 열심히 복음 친구들을 방문하고 형제자매들과 교통하는 것과

같은 여러 일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무시함으로 그분을 우리 속에 가둘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상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들을 처리하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방식을 따르기를 거절한다. 기꺼이 그분의 뜻을 따라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는 명백한 반역이다.

우리의 타고난 존재와 기질과 자아는 모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막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타고난 역량과 능력의 문제는 심지어 그보다 더 심각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지 못하게 막는 강력한 장애물이다. 많은 형제자매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며, 매우 경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역량과 능력이 강력하고 비상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서 어떤 입지나 길을 얻지 못하신다.

심지어 그러한 형제자매들은 그들의 역량과 능력이 교회를 위해 유익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려면 이러한 역량과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타고난 역량을 멸시하지 않고 도리어 매우 귀하게 여긴다. 만일 그들의 타고난 재능들이 파쇄되지 않은 채 그들 안에 남아 있다면,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문제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빛 비춤을 받아,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장애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을 제한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장애물들은 위에서 언급한 항목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파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방해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고 그 장애물들이 처리되고 제거되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날 것이다.(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3 장, 50-51, 53-5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4권, 생명의 체험에 관한 실지적인 공과, 16 장; 생명의 체험과 성장, 21-24, 27*

3/20 목요일

아침의 누림

벧전 2:1-2

1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일체의 악한 말을 버리고,

2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시 119:15, 23, 148

15 저는 주님의 법도들을 읊조리며 주님의 길들을 존중하렵니다.

23 통치자들도 앉아서 저를 비방하나 이 좋은 주님의 율례들을 읊조렸습니다.

148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자 제 눈은 야간 파수 때를 고대하였습니다.

히 5:13-14

13 젖을 먹는 사람마다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가 갓난아기이기 때문입니다.

14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감각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합니다.

빌 3: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 장 1 절에 언급된 죄악된 다섯 가지 것들의 순서에 따르면, 악의는 뿌리이자 근원이며 악한 말은 표현이다. 우리 안에 악의가 뿌리처럼 자리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결국 이 악의는 악한 말로 표현될 것이다. 악의에서 시작하여 악한 말로 발전하는 과정 안에는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는 악의에서 시작하여 악한 말로 하락하는 세 단계이다. ... 뿌리는 악의이고, 발전 단계에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가 포함되며, 최종적인 표현은 악한 말이다.

베드로전서 2 장 2 절에서 말씀의 젖은 ... 혼 즉 내적 존재를 위한 젖이다. 이 말씀의 순전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달되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의 이해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양육하며, 우리의 지적인 능력에 의해 흡수된다.

말씀의 순전한 젖 안에 포함된 공급은 속임수에 대한 항생제이다. ... 베드로 전서 2 장 1 절과 2 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속임수를 버리는 것을 실행하고 또한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한다. 깊이 뿌리내린 악의를 버리는 목적은 우리가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는 것이다. ...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기 원한다면, 즉 여러분에게 말씀 안에 있는 젖을 마시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있는 악의를 미워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말을 멀리 해야 한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 135-13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2 장 2 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말씀의 순전한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이다. ... 생명의 성장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가져온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생명이 자란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지, 초기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에는 거듭나는 것에서 시작하여 의롭게 되는 것을 거쳐 영광스럽게 되는 것(롬 8:30)에 이르는 긴 과정이 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초기의 구원을 받았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양육하는 젖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서 완전한 구원, 곧 영광스럽게 되기 위한 성숙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이 우리 혼의 구원이 될 것이며, 이 혼의 구원은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벧전 1:5, 9-10, 13). 그러나 문맥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는 직접적으로 2 장 5 절에 있는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와 2 장 9 절에 있는 “그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를 가리킨다.

베드로전서 2 장 3 절에서 베드로는 이어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이라고 말한다. 주님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분이시며, 그 맛은 달콤하고 좋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양육하는 젖을 사모할 것이다. 이 절에서 ‘좋으시다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달콤하시다는, 인자하시다는’을 의미한다.

베드로전서 2 장 4 절에서 베드로는 말씀의 젖에서 살아 있는 돌로 급격히 전진한다. 젖과 돌 사이에는 돌을 잇는 다리나 어떤 다른 연관성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먼저 베드로는 주님께서 양육을 위한 말씀의 젖이심을 알려 주고, 그 다음 계속하여 주님께서 살아 있는 돌이시라고 말한다.

이것은 젖이 돌이 되었음을 암시한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우리로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주님으로는 가능하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신 그리스도는 젖이시고 또한 돌이시다.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은 결코 고갈될 수 없다. 그분은 젖이시고, 떡이시며, 우리는 이제 그분께서 돌이심을 본다.

우리에게는 젖과 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더 많은 체험이 필요하다. 아침에 우리는 말씀에서부터 젖이신 그리스도를 마셔야 한다. 그럴 때 하루 동안 우리 안에서 변화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저녁에 우리는 교회 집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통해야 한다. 이것이 건축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침에는 젖이시지만 저녁에는 돌이 되시는 것을 본다. 하루 동안 젖은 우리 안에서 변화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돌을 산출한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6, 140-141, 143-144, 147-14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16;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7

3/21 금요일

아침의 누림

벧전 2:5, 9

5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9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이신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출 19:5-6

5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내 개인적인 보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6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 줄 말이다.”

롬 15:16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히 13:15-16

15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제물, 곧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16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희생 제물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빌 4:18 나는 모든 것을 넘치게 받아서 풍부합니다. 나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여러분이 준 것을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달콤한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 장 5 절에서 ... ‘영적인’은 살아 있고 성장하는 신성한 생명의 역량을 가리킨다. ‘거룩한’은 분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신성한 본성의 역량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집은 주로 신성한 생명으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제사장 체계는 주로 신성한 본성으로 존속된다. 따라서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동역하는 제사장 무리는 건축된 영적인 집이다. 비록 베드로가 그의 두 서신을 교회에게 보내지 않았고, 또 베드로전서 2 장 5 절에서 믿는 이들의 단체적인 생활을 강조할 때에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는 '영적인 집'과 '거룩한 제사장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회생활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으려면, 개인적인 방식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단체적인 방식으로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거하실 수 있는 영적인 집과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무리, 곧 제사장 체계를 원하신다. ... 믿는 이들이 동역하는 이 단체적인 봉사는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통해 산출된다. 그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벰전 1:2)과 그리스도로 양육받아 생명이 자라는 것과 믿는 이들이 함께 건축되는 것이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8, 162-16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영적인 집'과 '거룩한 제사장 체계'는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영적인 집은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 체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2 장 5 절에 따르면, 영적인 집이 건축되어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되는 것은 특별한 기능을 위한 것이다. ...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기를 위한 통로이심을 본다. ...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믿는 이들이 신약 시대에 드리는 영적인 희생 제물들은 다음과 같다. (1) 예표인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들, 예를 들면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레 1-5 장)의 실재이신 그리스도. (2) 우리의 복음 전파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드러지는 죄인들(롬 15:16). (3) 우리의

몸, 우리의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히 13:15-16, 빌 4:18).

베드로전서 2 장 9 절에서 ... '족속', '제사장 체계', '민족', '백성'은 모두 집합 명사로서, 단체적인 믿는 이들을 가리킨다. 하나의 족속인 우리 믿는 이들은 선택받았고, 제사장 체계 곧 제사장 무리인 우리는 왕들이며 왕의 존귀를 지녔다. 민족인 우리는 거룩하며,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얻으시어 그분의 보배로 가지고 계신 그분의 소유이다. '선택받은 족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것을 가리키고, '왕들이 제사장 체계'는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가리킨다. '거룩한 민족'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라는 것을 가리키며,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모두 단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건축될 필요가 있다.

선택받은 족속인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는 또한 왕들이 제사장 체계이다. '왕들이'이라는 말은 제사장 체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왕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멜기세덱으로 예표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의 신분을 가지셨던 것과 같다(히 7:1-2, 26, 창 14:18). 우리는 또한 거룩한 민족이며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거룩한'이라는 말은 이 민족의 본성을 가리킨다.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특별한 보물을 의미하는 ... 히브리어 표현에 상응한다. ... 디도서 2 장 14 절에서 바울은 '그분의 유일한 소유인 특별한 백성'을 언급한다. 이것은 또한 '고유한 백성'으로 번역될 수도 있으며, 구약에서 인용된 표현이다(신 7:6, 14:2, 26:18). 이 표현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소유가 된 백성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하고 특별한 보물(출 19:5)이자 그분 자신의 소유이다. 먼저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이고, 그다음 왕들이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 우리는 그분께 보배로운 그분의 백성이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8, 163-16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7-18

3/22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4:12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고후 10:13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고, 분량을 재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여러분에게 간 것도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입니다.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 21:15-22

15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

16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17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대가 원하는 곳을 다녔으나, 그대가 늙어서는 그대의 팔을 벌릴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띠를 동여매어 그대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19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알리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20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채 “주님,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여쭙던 사람이었다.

21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하니,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아 있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대는 나를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때,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로 분배된다. 다른 사람들로 분배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결과이다.(고후 4:12 각주 1)

우리는 바울이 너무 영적이어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바울도 주님의 제한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했다. 예를들어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가 기대한 것은 그곳에 결박된 채가는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그는 로마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그들을 거쳐 스페인에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롬 15:24). 바울은 단 한 번도 스페인에 가지 못했고, 오히려 그는 결박되어 로마에 도착했다. 그러한 결박은 주님께서 재어 주신 분량이자 주님의 제한이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재어 주신 분량의 한계는 로마에 자유로운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도록 하셨다. 그렇다. 바울은 로마에 머물렀지만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 그렇게 투옥된 것은 일종의 제한이었다. ...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며,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분의 주권 아래 있었다. 이것은 바울이 결박되고 투옥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제한이었음을 의미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어 주신 분량의 한계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했다. 바울은 그러한 제한을 벗어나지 않았고 그것에 맞서 거역하지도 않았다(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1, 475-47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은 젊은이들을 제한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만일 젊은이들에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은 그분을 섬기도록 젊은이들을 흔들여 깨우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분발되어 일어날 때, 주님은 그들을 제한하실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그러한 제한을 좋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마도 자신의 수면이나 행동이 제한받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여 깨우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활동적이라면, 그분은 우리를 제한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한하신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몇몇 젊은이들을 알고 있다. 어떤 젊은 형제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인도자가 되기를 원할 수도 있다. 그 형제가 인도자가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집사나 장로가 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일에서 그는 아마도 신속히 진보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우리의 속도를 높이고 그런 다음 늦추시는 것이다. 즉 처음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런 다음 낮추시는 것이다. 우리가 내려갈 때, 그분은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그분은 우리를 낮추실 것이다. ...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것과 낮추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분의 일에 유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낮추시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몇 차례 올려졌다 낮추어진 다음에 그들은 그만두고 싶어 한다. 그들의 태도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높이기 원하신다면 제가 하늘들에 오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당신께서 저를 낮추기 원하신다면 제가 바닥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반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낮추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은 많은 젊은이가 갖고 있는 성향을 밖으로 드러낸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높아져 있는 것도 항상 낮아져 있는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자연에서도 밤낮이 번갈아 오는데, 그러한 순환은 이것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해 동안 지속되는 낮과 밤을 창조해 주지 않으셨다. 그것은 우리의 방식에 부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말씀의 이 부분(고후 10:7-18)을 연구하고 이 말씀에서 자신이 교회 봉사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 지를 배울 것을 권장한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의 한계와 한도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분량을 재어 주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즉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나눠 주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한, 이러한 한계는 매우 실지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처리한다. 우리의 타고난 사람은 아무 제한도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점을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범위와 제한을 정하셔서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신 분량 안에 머무르게 하신다.(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1, 473, 47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1;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3, 16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9년, 2권, 성경에 있는 생명에 관한 중대한 계시, 16장

찬송: 1242 (英) 생명의 씨인 주님 우리 맘에 뿌려져

1 생명의 씨인 주님 우리 맘에 뿌려져
총만에 이르도록 자라 주의 배필 돼
씨 필요한 건 규율이나 형식 아니요
씨 자라나게 하는 것은 물 주는 것뿐
이 씨는 바로 예수 오 내 안에 사셔
주 자람으로 안의 이 씨 성숙되겠네.

2 우리 안의 씨 자라나면 밀 산출되나
신성한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네
밀 혼자서는 씨의 표현 갖지 못하네
모든 밀알이 함께 섞여 새 것 되야 해
이 씨는 바로 예수 오 밀도 예수라
밀알들 함께 섞여져서 한 떡 되야 해.

7 주 농장에 심겨져 생명 성장 시작돼
씨 자라 밀 돼 거기에서 식물 나오네
식물이 변화되어야 건축이 진행돼
금과 은 보석으로 건축 이뤄져 가네
농장은 보석들을, 건축을 위한 것
거기서 진주 산출되어 주의 신부 돼.

3/23 주일

아침의 누림

창 2:10-12

10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다.
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월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12 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마노 보석도 있었다.

고전 3:6-9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7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8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하나이지만, 각각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계 21:9

9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계 22:1-2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